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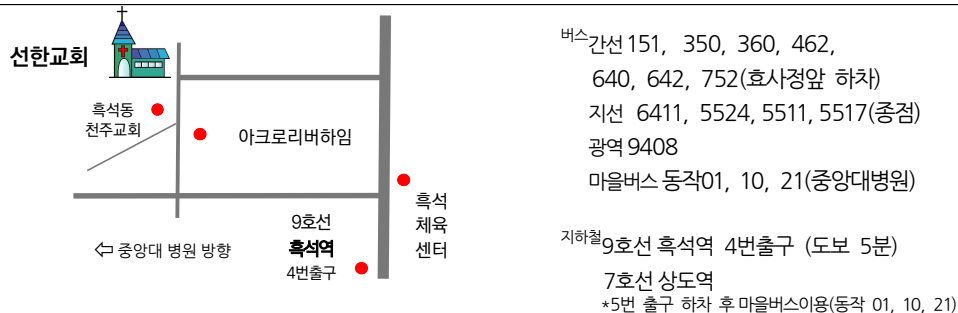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5장 (통일찬송가 55장)		
	교 독 문	교독문 2번 (시편 2편)		
	찬 양 과 경 배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출애굽기 4장 10-13절		
	설	교		모세의 사명 (방해)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편도선 집사		
말		씀	종말론 5강 (계20:1-15)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율법의 역할 (롬7:1-13)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무 처 리 회	오늘 2부 예배 후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2. 신 임 집 사 임 명	서창덕, 조홍식, 김지형, 김기호, 김지숙, 최은주, 박준혁
	3. 기관별수련회일정	유초등부 수련회: 1월31(금) - 2월2일(주일)
	4. 부 서 사 역 조 정	2월 2일(주일) 2부 예배 후에 부서사역조정이 있습니다.
	5. 설 예 배 안 내	이번주 금요기도회(24일)와 다음 주일(26일) 오후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6. 기 부 금 영 수 증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경강론 범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7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말씀위에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거룩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	--

찬송 :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통 349장)
본문 : 빌립보서 3장 7~9절
말씀 : 인생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영적, 신앙적 부분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떠오르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심방을 통해 성도들을 만나보면 교우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방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방문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방을 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면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목사가 가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상처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곤 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렵다는 성도 집에 심방을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오는 일도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곳곳하게 일어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저런 생각이 저런 기쁨이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스스로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의 나를 나 되게 하고, 무엇이 오늘의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합니다. 예수라는 가장 강력한 '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 역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린 연약해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를 의지한다면,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갖추고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을 미워할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환경 탓할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로지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도바울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평탄함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꽃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아닐까 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23장 1~3절)
이 말씀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를 발견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모세의 사명 (방해) (출4:10-13)
서 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요소를 이겨내야 합니다.
본 론	1.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 (1) 편안한 일상에서의 안주(창12:1) (2) 자신에 대한 변명과 핑계(3:11; 4:10) (3) 세상에 대한 두려움(3:11,13; 4:1,13) 2. 실천 (1) 내손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자. (2) 하나님의 선택을 변명과 핑계와 두려움으로 피하지 말자. (3)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첫발을 내딛자.
결 론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조윤익 장로
헌 금 위 원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허정미 김정원 김은정
오후예배 기도	편도선 집사	구정예배

매일 성경 강독		메시아에 관한 약속	날짜 : 1월 20일
찬양	나 어느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 통일 찬송가 466장)		
통독	예레미야 33장		
본문 내용	본장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전장이다. 회복의 시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심판이 있음이 강조된 데, 반하여 본장에서는 구원의 새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곧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여 그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이 영위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 진정으로 공의로온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본장은 포로에서의 귀환과 풍요로운 삶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13절)와 왕조 및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선언하고 있는 후반부(14-26절) 등으로 구분된다.		
생각해보기			
1	이스라엘의 회복약속4 (1) 1-13절: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할것이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사유하심으로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함 (2) 14-26절: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할 한 의로운 왕이 나심으로 그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얻고 다윗 왕권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 회복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함 (3)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조차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핵심 단어	15절. 의로운 가지가. 유라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다스릴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데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광야에서 베푸신 생명 양식”
찬양과 기도	오 신실하신 주 (새 393/통 447) /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지 뮐러는 1805년에 태어나 189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사춘기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한 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프로이센 태생이었던 그는 영국 브리스틀로 건너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모아 고아원을 설립한 후 평생 기도하며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고아원을 거쳐 간 1만여 명의 어린 영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66년 동안 고아원 운영과 선교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루에 두 번꼴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물질 면에서는 150만 파운드(7천 500만 달러)를 응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한번은 1실링도 없어 음식을 구하지 못해 400명의 고아들이 빈 식탁에 앉아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마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차 안에는 아침에 구운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 주문한 것이었는데 폭우로 취소되는 바람에 고아원으로 빵과 우유를 보내 온 것이었습니다. 뮐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6:1~15	
묵상포인트	오병이어 사건은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표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따지며, 꼼꼼하게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인간적 계산과 상식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으며, 오직 전능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헌신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시고자 빌립에게 한 질문은 무엇이며, 빌립은 예수님께 어떻게 답변했나요?(5~7절)	
적용하기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현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현실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편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당면한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공동체를 위해 적은 오병이어를 기꺼이 내어 드리게 하시고, 모자람과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쁨으로 묵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투옥되는 예레미야	날짜 : 1월 24일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 / 통일 찬송가 466)		
통독	예레미야 37장		
본문 내용	본장은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을 안 예레미야는 매국노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함락을 선포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방백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 난 후에 역시 동일한 예언을 행했다. 이러한 본장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첫 대면을 언급한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와의 두번째 대면을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11-21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어설픈 개인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의 입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거부된 기도요청 (1) 1-10절: 시드기야 및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 불순종한 사실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함. 애굽군의 진격으로 잠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났지만, 예레미야는 유다를 돕기 위해 진군하던 애굽군대가 철수하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시킬 것을 예언함 (2) 11-21절: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 그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바벨론의 첩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투옥된 사실을 보도함. 이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차 반복하여 예언하고 시드기야를 향해 자신의 탄원을 요청함.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토굴로 보내지 않고 시위에 뜰에 둠 (3)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개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3절. 기도하라. '간섭하다, 중재하다'는 뜻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재적인 기도를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왕과 백성들에 대한 예언		날짜 : 1월 21일	
찬양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송가 501장 / 통일 찬송가 255)			
통독		예레미야 34장			
본문 내용		본장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 유다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포로 됨과 죽음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저버린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주어질 처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거짓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당면한 정황을 정확히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시드기야 왕에 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7절)와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적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후반부(8-22절)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적인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긴 했으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간사한 회유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거짓 회개였다. 이러한 기만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생각해보기					
1		언약을 변개한 것에 대한 심판 (1) 제34-38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을 기록함 (2) 1-7절: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전을 고집하는 시드기야를 향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함 (3) 8-22절: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하고 다시 노예로 삼은 시드기야왕과 방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시고 심판 경고로 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성들이 황폐화되며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살육당하게 될 것을 예언함 (4)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된 자들은 하나님이나 사람간에 언약을 맺고도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그 언약을 변개한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증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핵심 단어		16절. 더럽히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레갑 족속과 유다 사람들	날짜 : 1월 22일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		
통독	예레미야 35장		
본문 내용	본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을 실례로 들어 유다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술을 금하고, 장막 생활을 하였던 바,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 축복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율법을 거절하는 유다의 배도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본장은 레갑 족속의 신실성과(1-11절), 레갑 족속의 모범(12-17절) 그리고 레갑 족속의 신실성에 대한 보상(18-19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레갑 족속을 통한 교훈 (1) 1-19절: 조상 요나답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모범적인 모습을 대비시키며 그들과 달리 당신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어 권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무시하며 패역되게 행하는 유대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대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조상의 교훈을 성실히 준수하는 레갑 족속에게는 축복을 각각 내리실 것을 선포하심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혈통이나 민족 신분이나 능력 등과 같은 선천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여부로 결정된다. (3)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다.		
핵심 단어	15절. 듣지 아니하도다. 이방 족속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레갑과 달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	날짜 : 1월 23일
찬양	기쁨때나 슬플때나 (찬송가 418장)		
통독	예레미야 36장		
본문 내용	본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사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로부터 당시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두루마리를 통해 심판이 선언되자 유다 왕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두루마리를 태워 버렸다. 이에 대해 선지자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했고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했다. 이러한 본장은 두루마리 기록의 배경과 기록(1-8절), 두루마리의 낭독과 소각(9-26절), 다시 기록된 두루마리(27-32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예언의 두루마리 기록 및 소각 (1) 1-3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지금까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심. 예레미야는 명령에 순종하여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유대 성읍과 성전에서 선포하게 함.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놀라워하며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했지만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소각하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도록 명령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바룩을 통해 여호야김에 의해 소각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예언의 내용과 여호야김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예언을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함 (2)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방해속에서도 전파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훼방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종을 박해하는 자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핵심 단어	16절. 놀라. 강력한 존재로 인해 느껴지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